

#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의 배경과 정신

이 동 익 신 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교 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2년 5월 13일 교황청 보건 사목 평의회 위원장 피오렌조 안젤리니(Fiorenxo Angelini)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제정 사실을 전하시면서 앞으로 매년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기념일인 2월 11일에 “세계 병자의 날”이 거행될 것이라고 밝히셨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92년 10월 21일에 발표된 제 1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에서 세계 병자의 날을 제정하게된 동기와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교 백성의 목자들과 교회 공동체 내의 여러 구성원들,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보건 사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이 세계 병자의 날이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봉사의 길을 새로운 헌신의 마음으로 추구해 나가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 8일에 발표된 제2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에서는 인간 고통의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다루면서 모든 보건 의료 종사자들은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1994년 11월 21일)에서 교황은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고통의 이유를 특별히 도덕적 정신적 가치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고통받는 사회, 인간이 안고 있는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고통을 선용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바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평화의 행위이며 선교이기 때문이며, 힘없는 사람들, 병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용기있는 증거는 평화에 대한 지대한 공헌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교회 창립 때부

터 꾸준히 전통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보여온 고통의 세계와 병자들에 대한 봉사 정신이며 (제 1차 담화문), 따라서 이 날은 교황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모든 신자들에게는 “교회의 선익을 위한 기도와 나눔 그리고 고통을 봉헌하는 참된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몸이 성치 못한 형제들의 얼굴에서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을 알아 보도록 초대하는 시간” (세계 병자의 날 제정 서한)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병자의 날 담화문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병자의 날 제정의 취지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1) 고통의 현실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기 위하여(1차)

2)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덜어 주자는 차원에서 새롭고도 긴급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1차)

3) 세계 병자의 날을 거행함으로써 교회는 보건의 사업이 극히 빈약한 개발 도상국가들의 국민들에 대한 투신을 새롭게 증진시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더욱 인간적이고 영신적이며, 물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며 이 시대에 존재하는 불의를 제거할 수 있기 위해서(1차)

4)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목과 자선활동에 새로운 자극을 줌으로써 사회 안에서 그러한 활동이 더욱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3차)

5) 단순한 전시효과로 만족하는 기념행사가 아니라 의식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봉사가 사람들간의 더욱 참다운 이해를 도모하게 하고, 그 결과 진정한 평화의 구출에 기여하는 가치있는 일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1차)

이렇게 볼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병자의 날 담화문을 통해 긴박하게 호소하는 다음의 몇 가지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과제가 될 것이다.

1) 고통중에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새롭고도 긴급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

2) 고통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봉사의 절대적인 요구;

3) 보건 사업이 극히 빈약한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교회가 투신하는 일;

4) 인간의 심오한 가치에 대해 무한히 열린 마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임신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 수호정신;

5) 특별히 의료 종사자들이 지녀야 할 정신적 자세, 즉 병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신앙의 눈으로 그들 안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정신적 재무장;

6)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보건을 세계적 차원의 우선 문제로 수용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봉헌함으로써 평화의 일꾼이 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 곧 신뢰를 가지고 ‘고통받는 종’이신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일 등이 그것이다.